二月七日압헤두고

海蔘威方面서 五名 上海에서 二十餘名

◇내무성경보국에정보가도착◇

義烈團員長崎上陸說

상해의렬단(上海義烈團)과해삼위로서아공산당(海蔘威露西亞共產黨)파련락을한 조선사람은경시텽송촌(松村)경보국(警保局)의명령을바다 어대상해삼위로부터는다섯명이 일만오천원의군자금을가지고일본내디에 잠입하얏다는 소문이잇고 상해방면에서는 이십여명이 일본에 들어가 당긔(長崎)에 상륙한사실이판명되엿스나어데가잇는지 아지못하는고로 내무성에서 고발하얏다더라

陝川서家宅搜索

門司警察署員이

경남합천읍내 강원숙(慶南陝川)씨의친아우 강원호(姜元祜)씨는중국남경(中國南京)에류학하다가 귀국하는도중에 일본문사 수상경찰서(門司水上警察署)에서심문을당하는중 서원두사람은지난달삼십일일에 입천에와서 해디방경찰서원의후원을어더 전긔 강원숙씨의집에서 가택수색을하엿는데 그내용은국비밀에붓친다더라(합천)

各種의國境情報

고려공산당원이드러왓다고

鍾路署에서活動開始

이월칠일이 점점 갓가워옴을따(大衆)서당과 당시간의밀의를 라하야 고도동디에서 위험인물한후곳 동게형사들은 출동식 들이동경(東京)으로잠행하지나 히여 시내각 요소를엄밀히수 안나하야 조선중요디머의 각경 색케하는동시에와통도(秘密)활동은 묵하 신경이매우과민하 과기다모모처에서 삼십칠후의 여지어롯히 덜도연변을 경계하 칭년세사람을 다려다가 동게밀 는중이데 작삼일오전시내 종로 실에서정(金)형사부당이취조를 서고동게에서는 전과와가튼 가 하는중이엇는데그정보의내용에 상춘신함만한정보(情報)두어장 … 을밧고 돌연긴장하여지 … 어동게길야(吉野)경부보가대삼 …

宋學先死刑

고등법원에서도사형언도

칠일새 지집행되지안으면

減刑되기가쉽다고

지난달이십칠일경성고등법원에서 각(上告棄却)의언도가잇섯다이 서공판을열고리전(里見)검사로부터 날도 송학선은 재판에출두하지 부터국형(極刑)의구형이잇슨장안코 서대문형무소 미결검독방 덕궁금호문사건(金虎門事件)의 피고송학선(宋學先)(三一)에대한 안에서 쇠수갑을차고잇스며 그 최후의판결언도는작삼일오전열 와가치 최후로운명의결뎡(사형) 한시경성고등법원대법뎡에서소 관결회뎡)을밧은것인데 이월칠 원(小川)재판장으로부터 립정 일안으로 사형의집행만 되지아 (笠井)검사의관여 (關與)아래 으면 이번감형에들어 사형이무 「상고한리유가업다」하야상고기 긔로경감될듯하더라

◇사형바든송학선

大赦範圍局限?

治維法、騷擾罪、爆發物違反

대사범위에들지안엇다고

아직公報는到着치안어

이월칠일어대장(御大葬)과동시에발표될은사령(恩赦令)의범위에대하야는 각종정보에 의하야 두두히 보도하여온바 이어니와 원래 은사령은 그전에도전례가 잇섯슴으로대사(大赦)의대데내 용은긔뎡범위와다름이업스나치 안유지법위반(治維法違反)기타 정치범에관한범위가엇지나될지 의문중인데동경서는범서범위를 확뎡하야 그공문을지난일일소포로못첫다는소식은잇스나아직까 지총독부당국에는도착하지안엇 는데일변데국통신(帝通)을것처 아래와가튼 동경뎐보가 도착되 엿스나 뎌확여부는 아즉 공보 따라서 은사 주칭을하기 위하야 (公報)가업슴으로알수업다더라

【帝通東京電】 어대장에 심리중이든바이일각의(閣議)에서 一、恩赦에關한詔勅奏請의件

◇大赦 旣報中에서

一、刑法第百六條及第百七條의罪其情報(騷擾罪)

二、治安維持法違反罪

三、治安妨害의目的으로써犯한爆發物取締罰則

第□條를남기고刑法에依하야處罰되엿든多額議員選擧違反罪

一般減刑 旣報와如함

特別減刑 一般減刑補足의意味로써個人的으로特別減刑을行함

特赦 特別事情이잇는者는將來에向하야刑의言渡效力을失케함

復權 選擧法違反者辯護士法違反者公證人法違反者等에對하야는一般的으로復權을行함

二、大赦令以下의各勅令을決定하야곳上奏御裁可를어들터이라더라(동경뎐보)

道、課署長會議

최근시국에대한여러가지협의

작삼일오전 열한시 오십분경부터경긔도 경찰부당실에서 경청시내각경찰서당회의가개최되엿는데 고등과당형사파당도 참석하고 몃칠안남은대장당일의 경계와 빈번히일허버리는 순사패검도실사건에 대한대책과 기타시국에관계되는 여러가지 경게방침으로의하엿다더라

正友會解體

委員會에서決議

지난일일성명서까지작뎡

總會에서正式決定

전번상무(常務)집행위원회에서 임의해테(解體)결의를한정우회(正友會)에서는 지난일일오후두시부터 서대문뎡(西大門町)이뎡목동회관에서집행위원회를열고 상무위원회결의에준거하야 다음과가튼성명아래해테를결의하고 다시금월십오일부터 이십일까지의사이에그총회를열고 전긔해테결의를동과식히어 그때에는아조정식으로해테를하리라는데 해테한뒤로는 가장민중에게접촉이만흔언론긔관의 필요로 경제투쟁(經濟鬪爭)과한정치투쟁(政治鬪爭)에관 팜프렛트가튼것을 때때로발행하리라더라

聲明要旨

『우리는一九二六年十一月十五日에發表한 宣言에잇서서우리運動의『從來에局限되여잇든經濟的鬪爭의形態로부터 그보다一層階級的이며大衆的이며 意識的인政治的形態로飛躍』進展하지아니하면아니될것을提唱、高調하엿다』는것을써두로하야『政治的으로同盟者的性質을가지고잇는 一般鬪爭要素와協同하야 統一된單一政治戰野를具體的으로組織하기로 提唱高調함은 左翼精神을拋棄乃至曖昧化하고저함이아니라 眞實한意識을大衆中에注入 浸透 展開하고저함이라』는의미를 전데로하고 『大衆으로더부러一般的鬪爭對衆에對하야싸호는同時에 또우리陣營內의一切의 機會主義에對하야不絕히果敢한 意識的及政治鬪爭을實行하야 彼等의本質을大衆의압헤서 暴露하야大衆으로하여금누가眞實한 벗인가를스스로判斷케하려하나 벌서이에對立하야 露骨的으로政治鬪爭拒否乃至過少評價하는『組合主義』와朝鮮民族運動을朝鮮無產大衆運動과 對立 식히는『小부르조아 이데올로기』가發揚하니 이것을征服하는同時에組合運動過程의 所産인組合主義的意識에서 脫出하며朝鮮民族의歷史的 役割에對하야스스로先頭隊가되자』는의미로맷엇더라

朝鮮少女를撲殺하여遺棄

양육하여준다고조선소녀

한명을학대한후필경죽여

犯人은中國人三名

지난일일밤에 시내태평통(太平通)이뎡목 삼십삼번디중국인세탁업진신행(陳信行)을븐뎡(本町)서에서 인치취조하든중이더니 이일오전 열시에는그의처와및당남 진문장(陳文章)(二一)을 검거하여다가 엄중취조중인데 내용은 비밀에부침으로 아직자세히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지하면 약이개월전에 남대문통(南大門通)어느조선사람으로부터 돈사십원을밧고 일곱살먹은 게집아히를 길러주기로약조한일이 잇섯는데 매일 학대를하야 필경병신이 되게하여거리에 다니지도 못하게하엿다는바 지난달 이십팔일밤에는 밤에다대변을누엇다고 진신행의처가뚜드리여 그것이 원인으로그이튼날 죽이십구일 오전다섯시경에 마춤내 사망한것을전긔모자삼인이협의하고 가만이에다 싸서시내죽첨뎡(竹添町)삼뎡목오번디금화산(金華山)에다내여버리엿든것이발각된까닭이라더라

◇고무동선에홀린아희들◇

朴烈의共犯

金重漢控訴公判

검사는일심대로삼년구형

박렬(朴烈)사건의련루자라는평안남도 룡강군 지운면두근리김중한(平南龍岡郡池雲面斗勤里)(金重漢)(二六)에대한치안법위반폭발물취체법위반에 관한 공소공판은 재작구뎡일월 일일오후한시부터 동경공소원 데삼호법뎡에서 당강(長岡)재판당심리와시(柴)검사립회하에개뎡되엿는바 검사는 공소사실을진술한후 전심과가치 징역삼개년의구형이잇섯스며 재판당은 십분에폐뎡되엿다는데 변호사로는 포시(布施)씨외한명이잇섯다더라(동경뎐보)

前後五年間

三萬七千餘

작년일년동안만일만사천명

현재총인구는삼십육만여명

激增하는間島移住同胞

작년일년동안만일만사천명현재총인구는삼십육만여명작년도에간도(間島) 디방으로 이주한동포수는약일만사천명에달한다는데 지금까지 이주하여잇는 사람은 도합 삼십육만명으로 대정십일년도 삼십이만삼천명에다 비교하여보면 오개년동안에삼만칠천명이더간세음이라는바다시분포상황을보건대아래와갓다더라

▲間島日本領事館內七、五三〇戶一〇一、九一五人 ▲局子街分館管內一〇、〇四七戶五七、八二八人 ▲頭道溝分館管內一一、四〇一戶六六、三五四人 ▲琿春分館管內五、四七二戶三〇、〇二六人

警察署에歲饌哀乞

不應한다고結項

—과세준비로경찰에십원을애걸 불응한다고문압헤서목을매여—

窮民은이러케過歲

지난삼십일오후세시에합천군황덕면하회리(陝川郡谷德面下回里)리은표(李殷杓)(四八)는 합천경찰서에가서먹기에곤난한중세모를당하니더욱살기가극난한즉 돈십원만꾸어주면명년봄에갑겟다하고 만일안꾸어준다면 인민을보호한다는경찰서의책임에위반되니어서꾸어달나고강청함으로서원들은여러가지로말류하여보내엿던바 전긔리은표는경찰서압헤잇는사구라나무에자기허리띠으로목을매여죽으려하는것을 해동서원이발견하고할수업시검속을하고 전긔리은표의친척에게통지하며 다려가라 하엿슴으로 삼십일일오전열한시경에두사람의친척이다려가랴하엿스나 리은표는아니간다하고명년봄까지유치당밥을먹여달나하는것을억지로자긔친척들에게돌려보내엿다더라(합천)

窮民에게歲饌

인천의고마운이들

이번구년말을당하야 인천부내극빈자를위하야 구조사업을한단톄와개인과 물품은아래와갓다더라(인천)

▲日本人婦人矯風會仁川支部에서는白米一石野菜四十貫古衣類廿點을花平里十九戶新花水里十七戶外里六戶에分給 ▲新花水里金泰勳氏는粗穀(燃料)三十八俵를花平里及新花水里二十六戶에分給

勞總委員檢擧

종로서에서두명을

작삼일오전종로서고등게에는경남밀양(密陽)경찰서로부터동서고등게일본이형사한명이급거히경성에출당하여와서종로서고등게원과 협의를한후 시내견지동(堅志洞)팔십팔번디조선로동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에서상무위원조경서(趙景瑞)씨에게자유출두(自由出頭)를명하야취조를하는한편으로또한전긔로총위원차금봉(車今奉)씨에게도즉시출두를명하야그날오후부터취조를개시하엿는데 그내용은 지난달이십일경부터전긔밀양군(密陽郡)에양화직공(洋靴職工)동맹파업사건이이러낫는데그달이십륙일로총으로부터 그파업단에『어대까지싸호라』는격문(檄文)을발송한일이잇서그것이밀양경찰서에문데가되야전긔와가치략취조하는모양인데그날오후에서야귀택(歸宅)을허락하지안엇더라

記錄은二萬張

被告는十二名

一오래동안예심중에잇든유림단 오는십일에데일회공판이열려一

儒林團事件十日公判

목하중국방면에서 활약중이경북성주(星州)출생김창숙(金昌淑)을두령으로 경상남북도를주장삼아전국각디의유림(儒林)을망라하야 긔미운동이래에 군자금모집한 사실이 작년삼월 경북경찰부고동과의손에 수리되자 김창숙을데하고 삼십여인이 검거되야그동안대구디방법원예심뎡에서십리를밧다가 지난년말에예심이종결되야 동법원공판에 부치엇다는것은일즉이 보도한바 어니와그중김헌식(金憲植)외십륙명은면소되고

大田郡鎭岑面龍頭里李源泰(三三)　蔚山郡熊村面石川里李在洛(四三)　高靈郡茶山面上谷里李泳鈺(四四)　現住北京西城拾飯寺原籍達城郡解顏面 李鳳魯(三六)　漆谷郡法田面台川里金東植(三〇)　奉化郡春陽面宜陽里洪□(三三)　榮州郡長壽面好文里宋永祜(三五)　奉化郡法田面台川里金華植(二五)　蔚山郡凡西面立岩里孫厚益(四〇)　安東郡陶山面土溪洞李棕欽(三七)　蔚山郡凡西面立岩里李宇洛(四七)　馬山郡元町 金昌鎔(四七)

십이명만 저령데칠호위반 치안유지법위반 총포화약류 취체규측위반 강도등죄명으로 오는십일동법원데일호대법뎡에서금천(金川)재판당의 주심으로 데일회공판이 개뎡되리라는데 동사건의데긔록은실로이만여장이란공전의대긔록으로 혹은 변호사의긔록 등사관계로 연긔될는지도몰으겟다는바 하여간 유림관계사건으로는 희유한일로 듯는바에의하면 그중몃명을은 이번대사(大赦)를입어방면되리라는말도잇다더라(대구)

음력설명절과(五)

꼭처야할풍속
지금부터쏙개량해야될것

三, 절갑

어린아희들이 설명절을 손꼽아기다리는것은 비나이쳐나 동서양을통하고 일반입니다 설에는새옷닙고 맛난음식을 먹으며새해라하며 부모님들이 나무라지도아니하시고 아희들 에게는참조흔 째입니다 그런데우리나라어린아희들은 다른나라어린아희들보다 특별히 다른의미로설명절의 깁붐이잇습니다 다른나라사람들은 새해가되면 어룬들이나 세배를다니지 아희들이세배를 다니는법이 업습니다 그런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룬보다아희들의세배가더굉장합니다

◇아희들은 새옷닙고 맛난음식먹는것이 설명절의 깁붐이아니라 집집마다 도라다니면서 세배하는것이 큰깁붐입니다 아니그것이 깁붐이아니라 세배하고 돈바더오는것이 깁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아희들이 자고나서는 『설이멧밤남엇소?』하고무르며 설을기다리고 설에 집버하는것은무엇보다 세배절갑을 밧는데잇다고 할수가잇습니다 만일 하여질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히낫분 풍속이니 꼭곳처야만 될줄압니다

◇말 잘 타 는 아 가 씨◇

◇어린아희들이 고흔옷을 닙고 새해어룬들을 차저보고 복을비는 세배설을하는것은 조흔일입니다 다어룬들을 섬긴다는 의미로보거나 새해를 축복한다는 의미로보거나 대단히 조흔일입니다 그러나 절을하고 반다시 절갑을밧으며 절밧은이는 반다시 절갑을주어야하는뜻은 아모리 호의로생각하여도 조케취할수가 업습니다 세배온아희를 그대로 돌려보내기가 섭섭할진대 마른과일이나 과자한봉을 싸주어 보내는것은관계치안습니다 돈을주어보내는것은 심히낫분일이니 절갑을돈으로 말매암아 아래와갓흔 조치못한결과가이러날뿐입니다

첫재

◇아희들이어룬에게 세배설을하는것은 돈을 바라고하는것이 됩니다 새해에는 어룬의복을 빌기위하여 절을 하는것이아니라 돈을 벌기위하여 절을하게됩니다 그 돈을잘주고 만히주는어룬에게 세배하기를 즐겨하고돈을잘주지안커나 만히주지 아니하는어룬을 실혀하고 미워하며 『작년에는아모개 어머니가세배갑을 아니주엇서 금년에는세배…

둘재

셋재

◇어린아희가돈이라는것을일즉알게됨니다 즉돈의욕심이생김니다 돈만잇스면 사고십흔것 먹고십흔것 작난감 별별것이 다수중에드러올것을알며 돈을가지고 십흔생각이 일즉이생깁니다 차차커서세상에 사러가노라면 자연히돈도아라지고 돈의욕심도 생깁니다마는 오륙세부터 돈을주어가며그욕심을 일즉이 너허줄필요는업습니다 아모조록 그러한 욕심을 갓지안코 자라게하는것이부모된책임입니다

◇그러나 어린아희에게 절갑을주는것은 이러한 조치못한습관을 길너주는것에 지내지못합니다 금년에는 결단코어린아희에게 절갑을주지마십시요 내자손을위하는이는 남의자손도 위합니다 내자식이 그런습관을배호는것이 실혀신분은 남의자손에게먼저돈을주지마십시오(끗)

토끼타령(二七)
―傳說의擴布上으로보는 人類文化의原始世界性―
崔 南 善

◇朝鮮의虎兎角鬪[…]

短篇小說 그릇된瞳憬(四)
◇咸興 金德惠

懸賞二等當選小說

『곡일본식이야 허될업는일본가며 저먹대로될써써지 외와가녀자야 왜집신에 왜옷을입으면지고는 긴요히 쓸준비를하엿나 『현연합결』하든 여러사람의말을이다 말하자면 …

간도소녀 야학원설립

허생뎐
—(32)—
안성출발

一、류진사와작별

二、말다고가라는류진사

三、나막신벗고집신신어

四、작별하기가섭섭하야

日本土地問題

東京電에 依하면 一部貴族院議員이 小作爭議를 根絶하기 爲하야 土地國有案을 提議하게 되리라 한다 電文이 簡單한 것은 아니라 來九日開催되는 貴族院多額納稅議員總會에서 論議되리라 하니 如何히 歸結될는지 興味잇는 問題이다 그러나 日本資本主義의 絶對의 構成을 가진 代言者요 또 스스로가 日本資本閥의 中心임에 關하야 吾人은 決코 多大한 期望을 하는 者는 아니다 그러나 論議된다는 點으로 보아서는 日本의 資本主義는 旣히 成熟期를 지나 成長보다는 破壞線에서 亂舞하는 時期라 할 수 잇슬 것이다 從來의 小作制度는 발서 그 內在的 缺陷에 依하야 그 存在가 오히려 資本家自身의 利益을 害하는 者가 되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特別한 方途에 依하야 自家利益의 擁護를 圖謀하는 한 手段인 것은 明若觀火이거니와 그래도 時代思潮에 順應되는 熱語만이라도 利用하겟다는 것은 恰悧한 者라 하겟다 그러나 國有의 熱語만에 恐怖症이 생긴 部類의 사람도 잇슬 것이오 또 神經過敏으로 國有實施前에 土地處分方法을 千思萬慮하는 者가 有할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假似 多額納稅議員의 多大數의 贊同으로 具體案이 成立된다 할지라도 貴衆兩院에 提案되야 通過되리라고는 보지 안는다 그 案의 內容如何에서도 關係가 有하겟스나 單純히 案의 外包的 名辭에 自劫하야 圓滿한 論議를 보기 前에 一擧下에 埋葬되고 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案이 貴衆兩院에서 通過되는 때를 想像하여 보면 日本의 無産階級 더욱이 農民階級을 爲하야 慨慷할 바이 잇다 그는 提案者가 多額納稅者라는 點으로 보아 또는 貴衆兩院의 議席을 占領한 者가 現代資本主義의 恩澤下에 現在의 地位를 得한 者인 즉 小作爭議의 責任을 他에 轉嫁하는 同時에 現在以上의 利益을 計劃할 수 잇는 때에 비로소 通過될 者이 즉 小作農民의 窮狀은 現在以上에 達하게 될 것이오 國有化함으로써 小作爭議는 單純한 經濟運動에서 政治運動으로 方向을 轉換하게 되는 同時 農民의 不利益은 推想할 수 잇슬 것이다 勿論 生産機關의 全部를 國有化하는 第一步로서의 土地國有라면 日本의 無産階級을 爲하야 祝賀할 者이나 運動의 自體가 資本閥의 利益擁護를 主眼하는 者이라 國有의 代償으로 土地의 代價에 對하야는 國債를 發行케 하고 此種國債의 利息을 現下의 小作料以上의 利率로 定케 하고 此를 確保하기 爲하야 米價公定制度까지 實施하게 할터인 즉 資本家의 利益은 確保하고 小作爭議에 對한 責任만을 國家에 轉嫁하려는 者인 즉 時代思潮를 利用하야 時代思潮에 逆行하려는 者이라 長久치 못할 것은 多言을 不要할 것이다

日本利下와 朝鮮
甲乙兩銀行態度
定期再利下는 疑問視

麥粉輸入은 關稅로 激減
移入逐年漸增

外米稅撤廢와 朝鮮如何
아직 無必要

一般金利 低下誘導

至當

當分不能

末久協議

大規模의 朝鮮鐵道網計劃 (三)

日本米買上 中止聲明?

二月當限에는 惡米處分場所

期米 前場暴騰

後場反軟

前場賣買狀況

天井不知의 勢

仁取臨時休業

七八兩日休業

鐵道局業績增收

各地延取引

株式 前場稍騰

後場續强

諸株一齊小口

京取七圓突破

大市勢待商情

安取十圓恢復

綿糸反撥影響

短篇創作 脫走 (三)
延星欽